

한라시론



김장한 전 광주우총영사·전 국제대 교수

금년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양상은 크게 바뀌고 있고,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적지 않은 전문가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의 변화를 다양한 형태로 예측해 왔지만, 오늘과 같은 집단적 공포와 통제된 상황이 발생하고, 인류가 그 속에 장기간 직면하게 될 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것 같다.

코로나19와 개인위생관리

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재연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이제 세계 도처가 긴밀히 서로 연결돼 코로나19의 확산도 동시적으로 이뤄지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 금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전 세계가 혼돈 속에 있는 것도 바로 교류가 너무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인 지도 모른다.

개인생활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각 개인도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철저히 대비해야겠다. 위생관리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의 안전을 위해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간 전염병이 일상 생활에 가져온 사회적 변화는 엄청나게 많다. 하수도가 생겨나고 상수도 시설이 세워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도 전염병 창궐과 관련이 있었다.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정부와 각 단체에서 권장하는 것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의 안전과 위생을 지켜주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과 식당에서도 음식물 용기를 각 개인이 각기 이용할 수 있는 구분이 있는 접시 사용, 또는 음식물 분배 시에는 공동의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토록 위생관리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마음가짐이 신체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육체적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의 습득과 명상을 일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역 등 주변에는 운동기구와 시설이 넘쳐나고 있다. 심신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는 걷기, 단전호흡, 요가 등 어떤 운동이든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고 꾸준히 지속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겠다.

사설

제주공항 허술한 보안, '대수술' 나서라

제주국제공항이 올해도 보안검색에 '구멍'을 드러내 충격적입니다. 매년 제주국제공항 보안 검색이 풀리는 현실은 국제공항으로써의 이미지와 연간 3000만명 이용객의 안전에 큰 불신을 초래합니다. 제주공항의 허술한 보안검색 문제는 매년 황당함 그 자체입니다. 지난 22일 가출신고된 10대 학생이 공항 대합실에서 주운 타인의 항공권과 신분증으로 비행기를 무사(?) 탑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안검색대와 탑승 게이트 통과에도 발각되지 않았고, 10대가 30대 성인으로 둔갑해 탑승하는 상황에도 모두 몰랐습니다. 지갑 주인이 재발권받아 탑승하고 나중에 기내 승무원에 의해 발각된 후 기장은 '캠프리턴' (할주로 진입 전 탑승교로 항공기를 돌림)을 해야 했습니다. 195명 승객은 예정 시간 1시간 지연출발의 불편·손실을 고스란히 겪었습니다.

이런 제주공항의 보안검색 허술함을 보여줍니다. 작년 6월에는 인도국적 부부가 여아와 함께 위조여권으로 제주공항서 대만으로 출국했다가 강제소환시킨다는 대만의 통보후에야 알았습니다. 2018년엔 30대 남성이 남의 신분증으로 제주에서 비행기로 타 지방을 오가며 절도행위를 했지만 경찰 적발전까진 공항 관계기관·항공사 모두 몰랐습니다. 같은 해 40대 중국인은 제주공항서 출국심사를 마친 후 탑승 않고 공항을 빠져 나가는 황당한 일이 터졌고, 2016년엔 중국서 제주공항에 도착한 중국인이 입국심사 없이 공항 외곽 담을 넘어 빠져 나간 일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범죄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버젓이 국제자유도시 제주공항에서 반복된다는 현실에 기가 잡힙니다. 제주공항 인적·제도적 보안시스템 전반에 공항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총체적인 재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하수 위협하는 화학비료 줄일 수 없나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갈수록 위협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양분·축산단지가 밀집된 지역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수의 오염원 가운데 하나로 화학비료가 대두했습니다. 점점 화학비료 사용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 도내 비료 공급 현황을 보면 화학비료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화학비료 공급량은 2017년 4만3086t, 2018년 4만4602t, 2019년엔 4만7078t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중 지난해 질소비료 등 화학비료 공급량은 1만754t으로 2018년보다 4.2% 증가했습니다. 복합비료(질소·인산·칼륨) 공급량도 3만6324t으로 2018년보다 5.9% 늘었습니다. 반면 토양개량제(규산질·페회석) 등 친환경비료 공급량은 감소

하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친환경비료 공급량은 2017년 2만4079t에서 2018년 2만3181t, 지난해에는 1만9291t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비료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친환경비료 사용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사용량이 늘면서 지하수에 미칠 악영향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서둘러야 합니다. 화학비료가 지하수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구좌 등 동부지역의 토양·지질학적 특성과 지하수 오염 증가 원인 등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화학비료 과다 사용 등이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농도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때문에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지하수 오염원을 줄이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편집국 25시



부미현 정치부 차장 bu8385@ihalla.com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른바 이며 달변가다. 어떤 주제든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펼친다. 지난 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 앞에서 가진 강연에서도 그의 진가는 여실히 드러났다. 원고 없이 즉석에서 40분 가까이 보수의 가치를 역설했다. 최근 원 지사는 강연은 물론 자신의 SNS에서도 정치 현안을 일갈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은 정치인의 말과 글에 주목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닐 것이다. 유권자가 말과 글에 일가견이 있는 원 지사에게 '참 스마트하다'라는 평을 내리는 것과 다음 대선에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지지의 마음을 먹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민을 움직이는 힘

국민들의 투표 행위에는 감성도 작용한다. 특히 자신의 한 표가 누군가를 큰 정치판으로 나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무의식적 행위가 작용하는 선거가 대선이다. 자신의 표를 행사함에 있어 최대한의 효용 가치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 한 표로 어떤 측면에서는 비주류(호남 김대중, 고졸 노무현, 경제인 이명박, 여성 박근혜, 피난민의 아들 문재인)로 분류되는 정치인을 대권의 반열에 올림으로써 대리 만족할 수 있어서다. 원 지사는 주류에서 먼 제주 출신이긴 하지만 그의 삶 자체는 주류에 가깝다. 국내 최고의 학력과 법조인이라는 배경, 화려한 정치 이력을 가졌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과 글에서는 그 배경에서 오는 여유가 느껴진다. 논리적으로 무장한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논리적인 사람을 택하는 게 대선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인지 '캠페인 커'로 불리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대권 후보 리스트는 여전히 '공란'이다. 앞으로 2년, 자신의 정치 인생의 가장 치열한 삶을 살겠다는 사실상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원 지사는 과연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뉴스-in

“어려운 시기에 정신은 중앙에” 비판

“도민들에게 예의 아니다” 이날 이승아·김경미 의원은 강순문 실장에게 각각 학교 시설비 예산과 특별교부금 관련 질의에 나섰지만, 정작 이름을 부를 때는 “강문순 실장님”이라고 호칭. 이에 강순문 실장은 김경미 의원이 질의할 당시 “제 이름은 강문순이 아니라 강순문입니다”라고 해명하는 촌극. 송은범기자

장애인 공직자 근무환경 개선

○...제주시가 장애인 공직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유형과 업무 특성에 따라 업무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2018년부터 시작한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장애인 공직자 4명에게 핸드컨트롤 등 5개 물품을 지원했고, 올해도 수요조사를 거쳐 한손키보드 3개와 특수 마우스 1개를 3명에게 지원할 계획. 시 관계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필요한 공직자는 수시로 신청하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부고 박치선(에이스테크) 어머니 창원 황씨 춘호(향년 92세)께서 서기 2020년 6월 24일 11시 1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6월 25일(목요일)
▶발인일시: 2020년 6월 26일(금요일) 오전 10시
▶발인장소: 신제주성당
▶장 지: 양지공원→황사평 천주교묘지
아들 박치선 며느리 한효승
남규 이은옥
딸 박진숙 사위 서두옥
손 박홍민 외손서지희
영민 영주
태환 평주
소영
※ 연락처 : 박치선 010-5891-7520
박남규 010-6306-0655
박진숙 010-6208-0855
서두옥 010-4693-0855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약원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홍2리 용암동골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